

남가주 교협 신임회장에 민종기 목사 선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제 41차 정기총회를 15일 총현선교 교회에서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민종기 목사, 수석부회장에 변영익 목사(벤델장로교회)를 선출했다. 41대 신임회장 민종기 목사는

이다. 40대 교협에 이어 작은교회 지원에 관심을 기울인 민종기 목사는 “총현선교교회에도 현재 쓰지 않는 장의자가 있으며, 변영익 목사도 벤델장로교회에 고급 오르간이 방치돼 있다”며 “중대형

와 부활절 연합예배, 작은교회 사랑하기 전도 부흥축제, 이단 대처를 위한 간담회, 남가주 교협 창립 40주년 기념 감사 연합부흥회, 사랑의 쌀 나눔 등을 개최하며 한인 사회와 교계 연합, 발전을 위한 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41차 정기총회 단체 사진.

■ 제41차 정기총회 개최, 수석부회장에는 변영익 목사 ■

“교계 선배들의 희생으로 이끌어 온 교협 40년 역사가 더욱 빛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먼저 남가주 각 교회 발전과 기독교 단체와 한인 커뮤니티의 소통과 연합에 주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교회에서 쓰지 않는 철제 의자, 교회 용품 등을 작은교회에 적극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은교회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개최하지 못하는 부흥회를 교협 임원이 무료로 강사로 봉사하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현재 교협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민 목사는 ‘각 회원간의 소통’이라고 말했다. 남가주 1,350여개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라는 깊은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

40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2010년 한 해 동안 인구조사 주일 교계연합 공동 캠페인 전개

양한 일들을 진행한 바 있다.

지용덕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는 엄규서 목사의 기도, 심진구 목사의 성경봉독, 김재연 목사의 설교, 김사무엘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2부 회의의 시간은 업무보고, 감사보고, 안건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회의 시간 박효우 목사(남가주 한인목사회 회장)는 “본인을 포함한 교계 지도자들이 지난 1월 아티티 지진 난민을 돕기 위해 성금을 마련해 아티티 현지를 방문

하고, 아티티 교계 지도자를 초청해 지난 4월 초 성금을 정확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와 관련된 회계 보고가 명확히 되지 않아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한 김재연 목사는 “\$59,021 수입과 \$55,597 지출, 현재 \$3,424 잔액에 대한 교협 일반 회계보고에 아티티 성금 \$146,834과 및 사랑의 장학금 지원금 \$26,670이 포함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수입 지출내역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해 교협 임원회에서는 관련 서류 및 영수증을 정리해 관련 사실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재일 기자)

사랑의 쌀로 이웃사랑 넘치는 한인사회



◎ 미주 사랑의 쌀 나눔 운동, 12월 30일까지 모금 예정

“지난해 지원받은 쌀을 보여

나눔선교회 청소년에게 복음이나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 한인단체에서 배부신 사랑을 힘입어 앞으로 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했죠. 사랑의 쌀은 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 나눔선교회 대표 한영호 목사

2010년 사랑의 쌀 나눔 운동 LA 총영사관 초청 만찬 행사가 지난 4일 LA 총영사관에서

열렸다. 교계 주요단체 및 LA 총영사관은 목회자 및 한인 단체장들을 초청해 성탄절 한가주 쌀 한포 10불 후원 모금운동을 소개 및 후원요청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사랑의 쌀 나눔운동 취지를 설명한 지용덕 목사는 “사랑의 쌀 한포는 소중한 이웃들에게 큰 희망과 생명을 의미한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웃을 품어 모

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정명 목사는 “지난해 126개 교회 및 단체의 협조로 사랑의 쌀 1만 50포를 나누었다”며 “지난해 초과됐던 목표 모금액 약2만 5천불 가운데 50%는 학교 급식 지원금으로 53명에게 장학 증서와 300불씩 장학기금을 전달하고 50%는 다민족 나눔 운동으로 타민족에게 사랑의 컵라면 1,600박스를 전달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송 목사는 “11월 1일부터 12월 30

일까지 2개월간 한인단체, 교계 등 함께 손잡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많은 협력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오는 12월 5일(주일) 오후 6시 30분 총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에서는 미주 사랑의 쌀 나눔 음악회가 열린다. 음악회는 월드미션대 윤임상 교수의 지휘로 LA 코리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월드미션대학교 챔버 콰이어가 멘델스존의 오페라리오 ‘엘리아’를 연주할 예정이다. 2010 사랑의 쌀 나눔 운

동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지용덕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이정현 목사),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회장 박용덕 목사), 오렌지카운티목사회(회장 손태정 목사), LA총영사관(김재수 총영사), 중앙일보, 한국일보가 주최하며 미주성서화운동본부(회장 박희민 목사)와 홀리클럽이 주관한다. 문의: 213-384-5232 체크: (Pay to) Holy City-사랑의 쌀 (지재일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LEE & KENT LAW OFFICES OF LEE & KENT
www.leekent.com
www.us-lawoffice.com

지난 20년간 미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종합법률그룹으로서 고객 한분 한분께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상법 / 소송	파산법	이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 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 ▶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회사 설립, 계약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신용 문제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 종교비자&종교이민, 가족이민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대표변호사 이문규

- LEE&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법 전문변호사
- Univ. of Minnesota 법대 (J.D)대학원 졸업(1993년)
- Univ. of Missouri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1989년)
-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정회원
- 변법위원회 및 세법관할 정회원 변호사
- 미국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주리주 공인회계사(CPA) 협회회원
-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담당)
- 미주 상공인 총 연합회 고문 변호사
- 국제 Law Firm Couderc Brothers 근무
-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세법 외 수천 건 해결

이문규법률그룹
LAW OFFICES OF LEE & KENT
대표전화 213-380-2828
IRVINE 949-442-8370

LA Office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콘길타워 1904호
822-510-5200

샌퍼난도 벨리 교협 11월 월례회 및 세미나 개최

영혼을 목숨보다 더 사랑한 전도자, 찰스 풀러를 되돌아보다

‘기도의 사람’, ‘성경이 전부인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 ‘학자적 목회자’... 모두 찰스 풀러에 관한 수식어들이다.

1924년부터 방송선교를 시작한 찰스 풀러는 세계대전의 후유증과 경제공황, 한국전쟁 등으로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라디오 시대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로 불리우고 있다.

지난 9일 은혜와평강교회(담임 유상수 목사)에서 샌퍼난도 벨리 교협 세미나 강사로 초청된 피터 임 교수(풀러신학대 선교대학원)가 이 같은 찰스 풀러의 영성에 대해 역설했다.

임 교수는 “1930년대 혁명적인 라디오 기술이 시작된 시기, 찰스 풀러 목사는 라디오 방송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했던 인물”이라며 “매주 2,000명 이상, 해



풀러신학대 선교대학원 피터 임 교수(앞줄 가장 오른쪽)와 샌퍼난도벨리교협 임원.

의 방송국 네트워크를 통해 약 1천만 명이 매주 방송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40년간 계속된 방송사역 중 하루 1만여 통의 편지를 받고, 도시 곳곳마다 필요한 설교자를 양성하기 위해 오늘날 풀러신

학교가 설립됐다”며 “현재도 복음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의 평생 꿈은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두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라디오를 통한 가장 효과적인 설교사

역과 좋은 설교자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 피터 임 교수의 저서들 『세상을 향한 복음의 열정과 사랑 풀러』 본문 중에서 -

“풀러 목사가 특히 영향을 받은 인물은 루벤 토레이, D.L. 무디, 찰스 스필전 세 사람”이라며, 임 교수는 “바이올라 대학 시절 스승

이었던 루벤 토레이로부터 배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천국에 대해 자주 반복하라’는 것이 풀러 목사의 뼈대가 되어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다”고 말했다.

“오늘날 복음주의 설교자들은 지옥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찰스 풀러 목사는 지옥에 대한 너무나 생생한 영상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찰스 풀러 목사의 설교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설교자는 항상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 『세상을 향한 복음의 열정과 사랑 풀러』 중 피터 임 교수가 다니엘 풀러 박사와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

풀러신학교 학생이나 졸업생 등 관계자들도 정작 풀러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찰스 풀러에 대해 연구하게 됐다고 밝힌 임 교수는 찰스 풀러 목사의 아들

다니엘 풀러 박사(풀러신학교 은퇴교수)가 쓴 찰스 풀러의 전기문 「바람잡아 전하라」 책이 기본 자료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미나에 이어 진행된 샌퍼난도벨리교협 월례회 예배는 이정현 목사(샌퍼난도 벨리 교협 회장)의 인도, 문일명 목사(한우리장로교회)의 기도, 김경훈 목사(원로 목사회 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설교를 전한 유상수 목사(분문 은 4:1~11절)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 오히려 요나가 분노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욕심, 열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지 못했던 모습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들이 되라”고 권면했다.

샌퍼난도벨리교협은 내달 7일 세계비전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재일 기자)

연방 및 주정부 지원으로 High School 졸업생에게
* 짧은 현장실습을 통해 알찬 직업을 추천합니다.

LAORT 대학 / 저소득층 영어 컴퓨터 전액 무료 직업교육 보조금 지급

1. 기초영어 중 고급 8개월 코스, 학비, 교재비 전액 무료
2. 다양한 직업교육 보조금 지급
3. 어카운팅,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컴퓨터로 하는 어카운팅, 사무직, 비서직
4. 컴퓨터 그래픽과 데스크탑 출판, 컴퓨터로 하는 디자인, 드라프트
5.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메디칼 오피스 스케줄러, 약사 보조직, 의사 보조직

상담: 플라워 박 130년 역사

<상담필수예약>

대표전화 (323)556-5386 Cell. (213)434-8128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유자격자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월서+La Jolla, 버스 20번)

두날개 목적은 '교회부흥' 아닌 '건강한교회'

두날개네트워크 서부지역 모임이 지난 11월 15일(월) 씨니사이드교회(담임 조인수 목사)에서 개최됐다.

교회별 두날개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하며 보강훈련을 실시한 이날, 웨스트힐장로교회 담임 김인식 목사는 “하나의 열린모임으로 평균 한 사람이 전도된다”며 “열린모임을 많이 만들고 지속하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웨스트힐장로교회

는 제자반, 군사반, 중보기도학교 등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60~70명가량 된다. 올해 5월 두 날개 시스템을 도입한 원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는 양육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가졌던 철저한 준비과정을 소개했다. 교회 안에 ‘두 날개 양육국’이라는 부서를 설치할 정도로 적극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두날개네트워크 서부지역 장 조인수 목사는 “동일한 양육시스템이지만 교회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훈련을 통해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왔는지 점검하는 일은 모든 교회가 꼼꼼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조인수 목사는 “두 날개 양육시스템은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목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박상미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지재일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일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헤어칼라 전문점

앞서가는 **젊은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매직 스테이트 \$10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칼라 발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LA 최고의 위치-미윌리콘도상가2층 월서+웨스턴 코너

3800 Wilshire Blvd., #2076 LA, CA 90010 Tel: 213-739-1022
스킨케어: Tel: 323-919-3994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벤엘장로교회 33년,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 감사

벤엘장로교회(변영익 목사)는 11월 7일 창립 33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벤엘장로교회는 감사예배 및 안수집사와 권사 임직예배를 7일 드렸다.

변영익 목사는 "목회는 내가 했지만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낀다"며 "33년 동안 한 번도 분쟁이나 분열이 없이 그리

만, 그렇지 못할 경우 높은 산에 돌을 굴러 올라가는 것만큼 힘들다"며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벤엘장로교회 창립 33주년 감사예배는 미주복음주의장로교회 총회장 정요한 목사(미주베델교회)가 설교했으며, 이어서 거행된 임직식에서는 윤성원 목사(오렌지한민교회 원로)가 임직자

창립 33주년 맞아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배 드려



벤엘장로교회 창립 33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후 기념촬영. (앞줄 가운데) 변영익담임 목사.

스도의 지체로 지내온 것에 큰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엇보다 "교회를 개척해 전도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잘 양육되어서 집사, 권사, 장로 등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지 보다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강직함을 귀하게 여겨 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33년간 성공적인 목회에 대해 변 목사는 '행정'을 손꼽았다.

변영익 목사는 "행정을 잘 하면 목회는 높은 산에서 돌을 굴러 내리는 것만큼 쉽지

들에게 권면했으며, 심진구 목사(남가주교협 사무국장)가 축사를 했다.

임직자들은 안수집사로 백문균, 이성호, 이진규, 정석환 등 4명이며, 권사로 김순애, 안혜자, 이우진, 최인숙 등 4명이다.

한편 벤엘장로교회 변영익 목사는 지난 15일 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으로 당선됐다.

변 목사는 "한 교회만을 위해 33년간 목회 했는데, 목회 인생에 있어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각오로 한인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미 기자>

남가주동신교회 창립 32주년 기념 부흥회

지용수 목사 강사로 나서

올해로 창립 32주년을 맞은 남가주동신교회(담임 손병렬)가 '지용수 목사' 초청 창립기념 부흥회를 개최했다.

11월 12일(금)부터~14일(주일)까지 개최된 부흥회는 예정통합 전 총회장이며 장원양곡교회 지용수 목사가 강사로 나서 '보배로운 성도'라는 주제로 7번의 집회를 이끌었다.

지용수 목사는 13일 저녁집회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세상 풍사에 휩쓸려 가면 안된다"며 "오로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 권면했다. 지 목사는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에서 옳다함을 받는 보



창립기념 부흥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 (앞줄 가운데) 지용수 목사와 (오른쪽) 손병렬 목사.

배로운 성도들이 되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병렬 담임목사는 지난 창립기념 인터뷰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깨달아 실천해야

할 때"라며 "하나님과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한바 있다.

이에 따라 남가주동신교회는 커뮤니티를 위한 구제와 선교에

힘쓰고 있으며, 무엇보다 성도들의 영적성숙을 통한 가정과 교회, 나라의 부흥을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다.

<박상미 기자>

세계비전교회 23주년...18명 임직 감사예배로

세계비전교회(담임 김재연 목사)가 창립 23주년을 맞아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18명의 임직자 감사예배를 지난 7일(주일) 드렸다. 축하객들로 예배당이 가득 찬 이날 임직감사예배는 미주복음

은 가장 복된 일"이라고 말했다. 정 목사는 "우리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이고, 임직자들의 다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교했다. 박효우 목사는 축사에서 "

등은 임직에 대한 감사로 교회에 차량을 헌물했다.

한편 창립 23주년을 맞이하며 소감을 밝힌 김재연 목사는 "수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있는 가운데 부족한 사람을 붙들어 세우시려는 그 뜻을 붙잡고 부르짖었던 24년 전이 생각난다"며 "하나님은 지난 23년을 허물 많고 부족한 목사도 사용하시면서 큰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했다.

김재연 목사는 "그러나 더 진실하고, 더 충성하고, 더 사랑으로 양들을 돌 볼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에 그저 감사밖에 드릴 게 없다"고 전했다. 김재연 목사는 23년 전 교회 창립을 준비하며



세계비전교회 담임 김재연 목사.

'주님 E 목사님처럼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C 목사님처럼 열정적인 목사가 되게 하소서', '주님 K 목사님처럼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민교회에 기념비적인 교회를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박상미 기자>

김재연 목사 | "부족한 자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주의장로교회 총회장 정요한 목사(미주베델교회)가 설교를, 김병용 목사(나성성서교회)가 권면을, 남가주목사회 회장 박효우 목사(풍성한교회)가 축사를 했다.

정요한 목사는 "인생에 있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면서 "말로다 할 수 없이 중요한 예수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23주년을 맞이한 교회가 18명의 귀한 임직자들을 양육하여 세울 수 있게 된 것은 더 큰 은혜"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전해질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들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날 임직된 세계비전교회 장로 1명, 안수집사 2명, 권사 15명

10k, 14k, 18k, 24k
최고가에 매입합니다

금매지 213-908-0854
축장한영 3960 Wilshire Blvd. #406 (윌셔+윌턴)

메디케어 수혜자 들게 알립니다!!

CA LIC #0G6788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 치과 • 처방약 • 한방침술 • 안경
- 헬스클럽 멤버십 • 해외여행
- 응급시 혜택 • 교통편 제공 등

무료상담 : 213-503-6897 (폴선)

문인으로 가는 길, 미주개혁 대학

문학수업 : 매주 월요일 오전 10:30

문예창작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시인, 소설, 수필가로 만들어 드립니다.
절차를 밟아 문학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미주개혁대학교 문예창작과에서 문학 수업을 받으십시오.
학위와 등단을 얻게 됩니다.
대한민국 햇볕 문학상 수상 작가인 박요한 목사가 강의 및 개인 지도를 합니다.

시인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다윗은 시인이었다.
다윗은 천수를 누리고 은혜가운데 전성시대를 열었다.
당신의 마지막 길은 "문학으로의 등단이다"

미주개혁교회 열린 예배에서 영광의 시대를 다시 찾자
주일 아침 10시 30분

미주개혁 신학대학교
The Reformed University

우편주소 : 3010 Wilshire Blvd. #228 LA, CA 90010 / 학교주소 : 2706 Wilshire Blvd. 1st Fl, LA, CA 90057
Toll Free: 1-800-281-2123 /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총장 신학박사 : 박요한 (Rev. John Park Ph.D)

[새벽강단 19] 라브레아커뮤니티교회 새벽예배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기독교일보는 남가주 한인 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명하여 새벽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시작하는 교회보다 성도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내어놓음으로 하나씩 지어져 가는 라브레아커뮤니티교회(담임 강진웅 목사)를 찾았다. '눈물로 씨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매일 새벽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는 교회의 터를 더욱 든든하게 다지고, 이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구원의 역사들을 소망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얻는다. 라브레아커뮤니티교회의 신앙 통독 새벽기도회 현장을 다.

〈본문: 빌 1-2장〉
오늘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신앙에 대해 얘기하면서 구원을 말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라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잘 설명해줍니다.

빌립보서를 가리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자유롭지 못하고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더욱 담대히 증거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라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피하고도 싶을 겁니다. 그러

나 믿음의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길수록 더욱 앞장섭니다.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옥중서신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쁨에 대한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인데 기쁨에 대해 자세하게 쓰신 사람이 슬픔으로 탄식하지 않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다?

라브레아커뮤니티교회 신약통독 새벽기도

20절 이하에 나오듯 우리 안에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옥신의 아픔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감옥에 갇혀 삽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아,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발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입니다. 나뉘진 돌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과 함께 어렵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여러 고생이 있었지만, 더욱 믿고 사랑하는 성도와 사역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때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때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 나갑시다.

〈박상미 기자〉



강진웅 목사

건강한 아버지 롤모델 세워 아름다운 가정을

와이낫파운데이션, 17일부터 아버지와 함께 프로그램 진행

나성영락교회 산하 와이낫파운데이션(YNOT Foundation, 대표 이사무엘 목사)은 한인 단체 중 최초로 아동 협회(Children's Institute)로부터 기금을 받아 한인 가정상당인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버지와 함께 프로그램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운영자금 4만 5천 불을 지원받아 건강한 한인 가정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YNOT 재단 스텔라 김 간사는 "먼저 아버지가 자녀의 삶에 관심을 갖

고 롤모델이 되어 자녀들이 보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며 자녀를 둔 모든 한인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을 위해 한인 가정상당소는 2011년 8월까지 4개월씩 두 차례에 걸쳐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가족 결속, 가족의 상처 및 자녀들의 문화 이해, 아버지의 자존감 회복, 폭력 및 약물중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 4개의 큰 주제를 갖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버지와 함께 프로그램은 11월 17일(수)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나성영락교회 소망관과 특수 사역부실에서 진행된다. 문의) 323-342-2808 (지재일 기자)



푸엔테힐스 현대차 추수감사절 할인 찬스!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할인 행사(패스터 패키지)를 진행하고 있는 푸엔테힐스 현대자동차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풍성한 할인혜택으로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 있다.

푸엔테힐스 현대는 2010년형 엑센트와 엘란트라를 물론 2011년 최신형 소나타와 제네시스를 11월 22일(월)~28일(주일)까지 할인 판매한다.

2010년 엑센트 GS(VIN # 172818) 정사가 \$17,095, 세일가 \$13,999

2010년 엘란트라 GLS(VIN # 093924) 정사가 \$17,795, 세일가 \$12,999

2010년 엘란트라 GLS(VIN # 055411) 정사가 \$18,610, 세일가 \$13,899

2010년 엘란트라 GLS(VIN # 053362) 정사가 \$18,690, 세일가 \$13,899

2010년 엘란트라 SE(VIN # 091984) 정사가 \$19,360, 세일가 \$14,299

2010년 엘란트라 SE(VIN # 090605) 정사가 \$19,410, 세일가 \$13,399


2010년 제네시스 쿠페 2.0 T M/T(VIN #041505) 정사가 \$25,625, 세일가 \$21,599

2010년 제네시스 쿠페 2.0 T M/T(VIN # 042493) 정사가 \$23,235, 세일가 \$19,699

2011년 최신형 소나타 GLS(VIN # 157254) 정사가 \$21,254, 세일가 \$17,699

2011년 신형 제네시스(VIN # 113840) 정사가 \$38,485, 세일가 \$32,899

한편, 푸엔테힐스 현대자동차는 '2010년 뉴 엘란트라' 모델을 목회자들에게 특별 할인해주는 '패스터 패키지'를 진행하고 있다. 목회자이면서 소셜 넘버가 없거나, 크레딧이 나쁜 목회자들에게 좋은 기회다. 문의: 213) 276-8959(찰리 정 매니저)




-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가 없으세요?
-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RADIO SEOUL

'홈 스위트 홈'의 진행자!, 사랑을 실천하는,

월드비전 음악홍보대사, 노형건의 '한 생명 살리기 주일예배대행진'

오페라 캐리포니아의 그 열정으로!
홈 스위트 홈의 사랑과 실천으로!
지구촌의 죽어가는 아동을 위해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과 나눔, 감동의 찬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World Vision
Building a better world for children
Celebrating 60 years

한생명 살리기 주일 예배 순회 일정

- 9월 19일(주일) 오후 12:30 - 새소망교회 · 2017 West Olympic Blvd, L.A, CA 90006 · (213)422-6966
- 10월 3일(주일) 오전 10:30 - 리빙워드 연합교회 · 1494 California Cir, Milpitas CA 95035 · (408)934-3600
- 10월 10일(주일) 오전 10:30 - 발렌시아 새누리 교회 · 25133 Ave, Tibbitts #1 San Clarita, CA 91355 · (661)964-8205
- 11월 21일(주일) 오전 1:30 - 팜스프링스 한인감리교회 · 72700 Fred Waring Dr, Palm Desrt, CA 92260 · (760)636-2675
- 11월 28일(주일) 오전 10:30 - 기쁨의 교회 · 3912 Wilshire Blvd, LA, CA 90010 · (213)351-9975
- 12월 12일(주일) 오전 11:00 - 천성 장로교회 · 6910 Potrero Ave, El Cerrito, CA 94530 · (510) 215-9800
- 12월 12일(주일) 오후 1:00 - 시온 장로교회 · 980 Stannage Ave Albany, CA 94706 · (510) 912-1955
- 2011년 7월 17,18(토,주일) 오후 7:30 - 오페라 CA 선교오페라단 · 1046 S. Victoria Ave, LA, CA 90019 · (323)936-2567



노형건
현 월드비전 음악홍보대사
현 사랑여성합창단 지휘자
현 AM1650 라디오서울 부국장 및 홈 스위트 홈 진행자
현 Opera California 선교오페라단 단장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M.M.)
(미국 버지니아 주 Voice Competition First place)
(미국 버지니아 주 Everett college 종교음악과 교수 역임)
(국립 합창단, 김자경 오페라단 단원 역임)
(워싱턴 오페라 단원 역임)
(미주예총 1994년 올해의 예술인 상 수상)
(2005 World Cultural & Sports Foundation Multi-Cultural & Musical Award 수상)

초청 문의전화
323-574-2747

www.rohyungkun.net

월드비전은 1960년에 한국 전쟁고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해 설립되어 현재 100여개 국에서 긴급구호 및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비영리 기독교 구호 기관입니다. 월드비전은 전체 모금액의 가운데 11.4%를 행정비용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해외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투명한 재정관리와 효과적인 사업으로 지구촌 아동을 돕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신학생들에 교실을”

▶ 캄보디아장신 대 전호진 총장 방미...관심 호소



전호진 박사

캄보디아장로교신학대학(총장 전호진 박사) 학생들에게 교실이 필요하다. 학교 부지는 마련됐지만 건축을 하지 못한 상태로, 최근 LA를 방문한 전호진 총장은 한인 교회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캄보디아장신대는 한국과 미주 12개 장로교에 소속된 캄보디아 선교사들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6년 미국의 여성 영락교회와 한국 교회들의 도움으로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근교에 학교 부지를 매입했다.

4.2ha의 부지에 들어설 본관, 학생회관, 기숙사 등의 건축비와 기자재비용까지 약 3백만 불이 필요한 상태이며, 이를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었다.

이 가운데 LA를 방문한 전호진 총장과 조봉기 선교사(학교 운영위원회)는 “캄보디아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학교의 건축에 한인교회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캄보디아장신대는 현재 13명의 전임 강사들이 캄보디아어와 영어로 가르치고 있으며 103명의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전호진 총장은 “학교 시설만 없을 뿐 학교 운영위원회, 교수진, 학생 등 상당히 셋업됐다”고 전했다.

현재는 일반건물을 렌트해 사용하고 있으며 매달 2천 3백불의 비용이 든다.

전 총장은 “선공기도 소용없는 더운 날씨에 시설도 열악한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며 교수와 학생 모두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 총장은 “103명의 신학생 모두가 캄보디아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동역하는 리더나 현지 독립교회의 전임 사역자들”이라며 “이들이 신학 교육만 제대로 받는다면, 캄보디아 교회를 이끌어갈 현지 목회자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캄보디아장신대는 ‘현지화’와 ‘국제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현지화는 ‘현지인을 양성해서 그들에게 교단과 학교를 이양한다’는 것이며, 국제화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신학자와 사역자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 남서쪽에 위치해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대표적인 불교국가들이며 그 중 캄보디아는 베트남과 함께 주변 국가들에 비해 선교의 문이 열린 곳이다. 전호진 총장은 “대부분 불교를 믿는 평민들의 차별은 있어도 정부에 의한 박해는 없는 편이고 비자도 용이하다”며 “캄보디아에는 외국 NGO 단체들도 많이 들어와 있으며, 특히 선교사들에 의한 장로교회의 역사가 깊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한인 장로교 선교사들은 지난 2003년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하나의 캄보디아 장로교 교단 설립을 목적으로 ‘캄보디아장로교 공의회(CCCP)’를 설립했다. 그 후 캄보디아 장로교 목회자들을 양성하여 캄보디아를 복음화 한다는 목표로 지난 2004년, 캄보디아장신대를 설립한 것이다.

전호진 총장은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해 장로교가 연합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뜻 깊다”며 “이것은 대학교와 목회자 양성에 상당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총장은 “많은 교회들의 관심과 후원, 기도를 부탁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미주지역 후원문의: (714) 847-2540 (김철민 장로) 후원계좌: 110-256-762129(전호진)

(박상미 기자)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회 세미나 개최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회는 지난 8일 세미나 및 기도회를 개최했다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회(회장 최재민 목사)는 지난 11월 8일 대흥장로교회(담임 권영국 목사)에서 세미나 및 기도회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김상덕 목사(복음장로교회)는 ‘착하고 충성된 종 아(마 25:2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교회의 본이 되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가주생명길교회 담임 아(마 25:21)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사회와 정치, 교회와 신학

교, 해외 선교사 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회의 세미나 및 기도회는 안병권 목사(가나교회)의 기도로 시작됐으며 콜로라도에서 목회한 이동희 목사가 특송을, 심영건 목사가 축도를 했다.

(박상미 기자)

6.25 전쟁 용사들, 그들이 바로 ‘영웅이었다’

지난 4월부터 약8개월간 제작 기간을 거친 ‘영웅이었다’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가 곧 출시될 예정이다.

‘영웅이었다’는 한국이 가장 힘들었던 6.25전쟁에 대해 아이케어(I Don't Care)하는 1030 세대들에게 지난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오늘을 감사하며 내일을 위한 희생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케어(iCare)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아이케어 캠페인의 메인 작품인 ‘영웅이었다(Heroes Forever)’는 지난 서울 기독교 영화제에 폐막작으로 상영됐으며 지난 12일에는 또감사 선교교회에서 미주 최초로 소개됐다.

‘영웅이었다’ 영화에는 초반기 10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6.25 전쟁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나온다. 청소년들 대부분은 전쟁을 겪지 않아 어떠한 공감도, 슬픔도 가슴 깊이 와 닿지 않는다는 의견을 말한다. 이어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전쟁 회상 장면과 10대 시절 북한 공산군으로 전쟁을 겪었던 한 노인은 당시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을 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었던 미



국 선교사(리처드 언더우드)와의 극적인 만남 장면도 소개된다. 처절한 전쟁의 아픔을 영화를 통해 이해한 청소년들은 이제 6.25 전쟁 영웅들에게 마음 깊은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영화는 막을 내린다.

영화 프로듀서로 참여한 찰스 김 목사(또감사선교교회)는 “젊은 세대들이 6.25 전쟁을 겪은 조상들이 바로 우리의 영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한인 디아스포라 젊은 세대가 역사를 바로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목사

는 “영화뿐 아니라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16인의 간증을 담은 포토에세이, 20대 유명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중심된 하우 뷰티풀(How Beautiful) 찬양 음반, 잊혀진 전쟁의 아이들 DVD 등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심어 아이케어 캠페인 대사로 세워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iCARE 캠페인은 한국 영락교회와 소망교회, LA의 또감사선교교회가 후원하고 있으며, 진행과 프로덕션, 배급 부분은 서울 기독교 영화제, 유스 스페셜티스 코리아 (Youth Specialties Korea)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 기독교 영화제 장신대 임성빈 교수와, Young 2080 고직한 선교사, 찰스 김 목사가 Executive Team으로 섬기고 있으며 Executive Advisory Members로 오성연 장로, 문예란 대표, 최찬엽 목사, 박희민 목사, 박기호 교수, 유의영 교수, 랄프 윈터(Ralph Winter, X-Men, Fantastic Four Producer), 최경욱 목사가 함께 하고 있다.

Home: www.i-carenow.org (지재일 기자)

결혼과 영주권 신청 합쳐서 \$700

- ▶ **싼요금 이혼 \$250부터**
- 20년을 길은 정소에서 영주권 3000건 이혼 2500건 이상을 완벽하게 처리한 사무실임
- 각종 이민 수속, 각종 소송서류, 번역, 진위기록 정리, 추정부 이민본도 #CD3512 LA에서 가장 정확하게 합니다.

●속성 결혼신고 \$130 ●가족초청\$190
●영주권 수속 \$600 ●이름변경\$290
●시민권 수속 \$100 ●공증 \$10

가고파 김경일 법무사 (Lic#0504)
T.(213)-252-0000
3540 Wilshire Bl.#318, L.A., CA 90010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홍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데이비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

북가주 지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UC Davis)에 위치한 데이비스한인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1982년 대학원생으로 시작된 아름다운 교회로써 제자훈련과 세계선교를 꿈꾸며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가지는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Qualification):

- ▶ 복음주의적 정규신학대학원(M, Div or Th, M 목회학 석사 혹은 신학석사)이상을 졸업하고 캠퍼스와 이민 목회 사역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수 있으신 분
- ▶ 교회에서 인정된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5년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 ▶ 영어권 사역의 중요성과 미국 문화에 익숙하고 이중언어로 설교가 가능하신 분

지원서류 (Application Package)

- ① 이력서(사진포함)
- ② 본인/가족소개서와 목회비전서(한/영)
- ③ 학위증명서와 안수증명서
- ④ 추천서 3부
- ⑤ 최근 섬기는 교회주보와 설교말씀 (영어와 한어 각각 1개씩)

제출처 : Davis Korean Church
ATTN: Sr. Pastor Search Committee(청빙위원회)
603 L St. Davis, CA 95616
Tel: (916) 717-0769 청빙위원
e-mail: blessedare@gmail.com

제출기한 (Due date): 2010년 10월 30일

남가주 최고의 정규 4년제 종합대학교

월드 크리스찬 대학교

World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BPPE 승인
SEVIS 승인
I-20 자체발행
ABHE 가입

예능대학, 선교대학, 신학대학
탐정대학, 경찰/경호대학, 언론정보대학
World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주정부, 연방정부, 교육국 승인]

방문, 상용비자를 학생비자로 변경

ESL, TOEFL

통신학부 **수시입학** **편입생 환영**

Phone: [323]734.0227, [323] 734.4599, [213] 725.3007
Fax: [323] 734.0053, 2716 Ellendale Pl. LA CA 90007

한장총 부흥사협 정봉기 목사 “기도는 믿음의 번제로”

▶ 세계성경장로교회 추계부흥성회 주장사 나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 부흥사협의회의 회장이며 남서울세은교회를 담임목회하고 있는 정봉기 목사가 LA를 방문했다.

다름 아닌 지난 12~14일까지 개최된 세계성경장로교회(담임 강신권 목사)의 추계부흥성회를 위해서다.

‘주여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부흥성회를 이끈 정봉기 목사는 기도와 특별히 새벽기도에 대한 헌신을 강조했다. 정봉

기 목사는 “우리의 기도를 믿음의 번제로 받으신다”며 “축복을 받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했다.

올 한해 한장총 부흥사협의회의 대표회장으로서 한국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 힘써 온 정봉기 목사는 특별히 새벽기도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장총 부흥사협의회는 종을 만들어 보급하면서 새벽기도회를 독려하고 기도대국이라는 명맥을 이어가고

자 한다. 정봉기 목사는 “대한민국은 신앙대국, 기도대국, 축복대국, 선교대국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쓰임을 받고 있다”며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한번 부흥의 불을 지피고, 이것은 거대 이슬람과 안티기독교의 도전을 넘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한 때를 준비하는 것”이라 말했다.

정 목사는 미주 한인교회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다.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한국인이라



정봉기 목사

는 것은 변함이 없으며, 그 한국인에게는 훌륭한 신앙의 유산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목사는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도 새벽기도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전했다.

정봉기 목사는 또한 한국교회의 사명을 이어갈 차세대 사역에도 참여하고 있다. 바로 4/14일인 4세~14세의 어린이 청소년 사역에 모든 교회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이 집단을 세계 선교를 위한 자원으로 동력화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 목사는 “한국교회가 대만

히 성장을 이루었지만 주일학교는 과거에 비해 저조한 현실”이라며 “한국교회와 이 땅의 미래인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전 교인이 관심을 가지고 전 교인이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프라미스코리아 한국네트웍 대표를 맡고 있는 정봉기 목사는 미국과 중남미 지역에서 기독교초등학교를 건립, 교육을 통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뉴욕 프라미스코리아의 김남수 목사의 ‘프라미스 미니스트리운동’과 연계한 사역을 하고 있다.

〈박상미 기자〉

그리스도의 ‘군사’ 삼는 뉴월드임마누엘교회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침(teaching)과 전파(preaching), 치유(healing) 사역에 충실하며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뉴월드임마누엘교회(담임 김승원, Mary Kim 목사)를 찾았다.

이 교회를 담임 목회하는 김승원 목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넘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한다”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권세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성도 수에 연연하기 보다, 성도 한 사람이 기도온의 300용사처럼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철저한 말씀과 기도 훈련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성도들의 사명을 일깨웠고 이 가운데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창립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치유사역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오히려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가정문제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상담과 기도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김승원 목사는 “치유 은사



뉴월드임마누엘교회 김승원 목사

김승원 목사 “성도들 그리스도의 권세 드러내야”

를 단 한 번도 구해본적 없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원인이 분명하니 해결 방법

도 간단하다. 김승원 목사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치유된다”고 말했다.

뉴월드임마누엘교회 김승원 목사는 두 가지 목회 비전

을 가지고 있다.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과, 주님의 증인으로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더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김 목사는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며, 성도 모두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군사로 권세를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뉴월드임마누엘교회의 문은 세상에 지치고 질병으로 고통 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활짝 열려있다.

◇예배시간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전 11:00/ 주일 3부 찬양예배- 오후 2:00/ 수·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교회주소
4055 Schaefer Ave., Chino, CA91710

◇전화
909) 993-4842(교회), 909)993-2157(상담)

〈박상미 기자〉



추운 겨울 따뜻한 의상 마련하고 선교회도 지원

나눔선교회(대표 한영호 목사)는 지난 13일 샌페드로 홀세일 마트(대표 강창근)로부터 여성의류 2백여점을 지원받아 야외 바자회를 열었다. 한영호 목사는 이번 바자회는 연말을 맞아 나눔선교회

사역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고 바자회 취지를 설명했다.

바자회를 지원한 강창근 대표는 기존에도 현금으로 나눔선교회를 지원한 바 있으나, 커뮤니티 봉사 차원에서 의류 상품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 자주 바자회를 마련해 추운 겨울 따뜻한 옷이 필요한 이웃들을 도움과 동시에 나눔선교회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지재일 기자〉

오토뱅크 Auto Bank

1만달러 이하 중고차만 사고 팝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는 차를 찾아드립니다.

충분한 워런타기간 / 교정시 지정 정비소 통한 수리 (80%XX)

John Ko
213-908-3308
http://joencha.com

80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57

www.rosehills.com

로즈힐 공원묘지

100여년 역사의 정성스런 관리서비스와 가깝고 편리한 로즈힐공원묘지를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세요!

비교해 보면 가장 저렴한 가격!
월 \$39부터!

▶LA한터운에서 20분거리 ▶풍수지리적 관점의 최고 명당
▶세계 최대 규모 단일 공원묘지 ▶한인장례매너의 친절한상담
묘지에서 장례식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저렴하게!

ROSE HILLS Memorial Park & Mortuaries
Rose Hills Mortuary Whittier #FD970

Morning Glory Lawn. \$2,900 plus one time endowment fee. 10% down payment. Balance financed at 3.9% (this interest rate is good for 2nd Quarter, April through June 2010). Automatic bank payment required. 84 monthly payments

본사 (한국어 직통) 1-888-848-8707
Rose Hills Mortuary (#FD970)
3888 Workman Mill Rd. Whittier, CA 90601

세리토스점 [한국어문의] 1-877-767-8850
Rose Hills Arrangement Center (#FD1849)
11900 S. Street, #119 Cerritos, CA 90703

브레아점 [Brea] (562)809-7027
Rose Hills Brea (#FD2007)
835 S. Brea Blvd., Brea, Ca 92821

장의 & 장례보험 문의 (562)201-7097

▶ 달라스연합교회 담임 김신일 목사

[기획 연재2] 한인 이민 교회와 선교적 정체성: 성서적 고찰을 중심으로



달라스연합교회 김신일 목사

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 이민자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이슈들에 대한 사회학적인 이해, 이미 논의한 성서적인 이해와, 이민자 됨에 대한 신학적 성찰" 들은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민교회의 현장은 선교지 만큼 특수합니다. 따라서 이곳을 먼저 배우고, 그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그 과정 중 꼭 필요한 것이 역사적, 사회적, 성서적, 신학적, 선교적 접근으로써, 앞으로 코담 컨퍼런스와 같이 이민 목회자들의 고민들과 목회적 이슈들이 나누어지는 장들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그 작업을 우리 모두 함께 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나가면서

오늘의 세션에서는 그 중의 하나 '성서적인 접근'을 통해, 이민자와 이민교회의 정체성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민자 된 우리들을 누구로 이해하시는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아가 이곳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은 무엇인지, 진지한 성서적 고찰을 통해 "정체성의 변혁"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고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작업을 진지하게 해 나가면,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민자 됨 (Korean Immigrant-ness) 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책임이고 축복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림"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적 도구와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 결과 우리들의 섬기는 교회들은 마지막 시대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 도구로 부름 받은 "한인 디아스포라의 부르심과 특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당신께서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선교적 잠재력" 들은 하나님의 소원인 Kingdom Business 를 위한 원동력으로 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상황화된 (Contextualized)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신일 목사 sinyilkim@gmail.com

전 세계 이민교회 사역자들을 돕기 위해 창립한 코담(KODIM:Korean Diaspora Ministry)은 지난 10월 2차 서부 지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코담은 세미나와 멘토링을 통해 이민신학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역자들이 목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분야별 강의를 요약, 기획연재 한다.

그 정체성의 혁명을 위하여

논문작업을 위해 이민자들과 이민목회자들과의 인터뷰들을 진행할 때, 자연히 제가 알게 된 이민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가장 큰 실존적인 문제는 바로 그 중간기에서 삶의 의미(Meaning of Life)를 갖느냐 못 갖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정체성의 변혁"이 필수인데 본인은 이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자아 정체성 (Self-Identity), 둘째는 상황 정체성 (Context-Identity), 그리고 세 번째가 사명 정체성 (Task-Identity)입니다.

성서적 접근 / 이민자의 눈으로 본 성경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온통 이민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민자들의 세 가지 정체성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자아 정체성 / 순례자로써의 인생 (Self-identity / Pilgrim)

가장 먼저 성경은 우리 이민자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부르심을 향하는 '순례자' (Pilgrim)로 이해합니다 (히 13:14)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길을 떠난 순례자의 원형이고, 이후 야곱과 요셉은 가족 문제로, 이스라엘 족속의 애굽 이주는 기근으로, 출애굽

과 이스라엘의 포로기는 정치적 이유로, 나아가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이유로 각각 다른 나라로 움직이게 되었지만, 여전한 것은 그들 모두가 그 여정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민자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순례자의 그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저들은 (1) 하나님을 창조자요 주권자로 이해하게 됩니다. 순례자는 자기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 사람들이 그어놓은 국경이라는 선과는 상관없이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분의 땅으로 이해합니다 (최효섭 1995:38) (창 14:19-20; 시 95:4-5; 렘 29:4-7). (2)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삶으로 이해합니다 (히 11:8-10). (3)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래로 이해합니다 (행 1:8; 행 8:4). 그때 이민자로써의 우리 삶을 바라보는 적극적인 시각이 형성됩니다. 우리는 어찌다가 이 땅으로 흘러들어온 이주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하에, 하나님의 또 다른 영토로 움직인,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을 향해 움직인,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움직인 순례자 된 이민자들입니다.

2. 상황 정체성 / 축복의 장으로써의 변두리 (Context-identity / Margin)

두 번째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이 미국 땅이라는 Context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이민신학자 또는 사회학자들은 우리 이민자들의 처한 곳을 변두리 (Margin)라고 규정하지만, 성경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변두리의 땅을 하나님의 손길과 현현으로 인하여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곳으로 적극 재해석합니다. 사실 변두리는 중앙에 선 이들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고 사용하는 용어일 뿐입니다 (Jung Young Lee 1995:30).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이민자 자리를 성서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민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이 성경적인 패러다임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1) 우리의 이민자 자리를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지는 장으로 이해합니다 (창 28:10-20; 출 3:1-12; 사 10:2-3; 히 11:24-25).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사들, 포로기의 이스라엘 등등, 그들이 선 변두리 땅은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지는 거룩한 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2) 이민자의 자리를 하나님 훈련의 장으로 이해합니다 (마 4:1-11; 행 8:26; 딤후 3:16). 한국 대 그룹의 매니저급 엔지니어로 일하시던 분이 이민을 와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게 되셨습니다. 심방을 갔다가, "집사님, 좀 어떠세요?" 여쭙었더니, 제 의중을 읽으신 집사님, "목사님, 다 훈련이죠. 저는 관왕야요. 저는 원자력 발전소 설계하다가 와서 다림질 하지만, 제 앞에 분은 우주선 설계하다가 와서 다림질을 하셨어요." 대답하십니다. 해서 모두들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그분은 그 자리를 훈련의 장으로 이해하고는 열심히 이민자의 삶을 개척하셨습니다. (3) 이민자의 자리를 새로운 출발지로 이해합니다 (왕상 19:1-18; 행 8:4, 26; 갈 1:17; 딤후 3:16; 빌 2:6-8). 지쳐 쓰러졌던 엘리야도, 주님의 사역 시작도, 사도 바울의 회심후 준비과정도, 초대 교회 빌립집사의 Cross-cultural Mission도 모두들 이 변두리에서 출발합니다. 결국 우리 이민자들이 서 있는 땅에 관한 "상황 정체성"은 "하나님 축복의 장"입니다. 우리들 사역 현장의 교회 가족들이 바로 그러한 시각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3. 사명 정체성 / 하나님 살림으로의 부르심 (Task-identity / Shalom)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기대하시는 "일", 그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림"을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 살림 (Shalom)은 단순히 다름이 없는 평화 정도가 아니라, 맨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형적인 질서를 의미합니다 (Snyder 2003:9). 이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장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존재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과 기대가 결국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민자들이 저들의 사명을 하나님의 그 꿈으로 이해한다면 저들은 이를 (1) 민족들 간의 살림으로 이해합니다 (은 1:11-13; 마 1:1-5; 롬 10:12; 계 7:9). 하나님은 민족 우월주의 (Ethnocentrism)를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 (계 7:9)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2) 문화들 간의 살림으로 이해합니다 (단 1:3-21). 이민자들에게 이는 특히 중요한데, 이에 관한 여러 가지 이해의 패러다임들이 있으나 우리들에게는 특히 창의적인 종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민 1세대들은 "문화는 어쨌든 계속 변화하는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적 창조성 (Cultural Creativity)을 주셨음"을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3) 하지만 오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민자로 부르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선교적 잠재력을 담아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려진 영혼들과 하나님과의 살림 (선교)을 이루는 도구로 선택하셨다는 시각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창 12:1), 이스라엘은 열국을 향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으며, 나아가 디아스포라 또한 그 일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출 19:6; 요 3:16; 행 1:8; 행 16:30-34; 벧전 2:9).

다시 Identity Transformation으로

이상에서 논의한 세 가지 정체성의 변혁은 이민자들의 변두리 경험들에 의해 형성된 피해의식들과 소극적/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이민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도와 꿈을 통해 적극적/긍정적인 태도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꿈 (Kingdom Value and Vision)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변혁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들의 변두리 경험 속에 담긴 이민자 경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도구요 잠재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사역의 현장들에서 이 변화의 가능성과 열매들을 계속하여 지켜봅니다. 특히 목회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바로 이 성서적인 이민자 이해와 접근이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지를 거듭 확인합니다.

하나 더 Contextualization !!

사족을 하다 더 달면, 바로 그 일을 위해 이민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개념이 바로 "상황화 (Contextualization)"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민 교회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은 모두 선교사적 상황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기에, 그 사역을 위해 "성육신적 방식 (The Incarnational Connection)" (Whiteman 2003)을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황화 (Contextualization)인데, 이를 위해 종합적인 (Synthetic Model) 신학방법과 사역을 위해 여러 가지 목회 자료를 (성서, 전통, 역사, 이민자 경험, 문화 변화, 사회 변화) 고루 취할 것을 권합니다 (Beavans 2004:32). 그 중에는 "이민자 됨

자 동 차! 도네이션

남가주 지역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들 위한 차량이 필요합니다.

- 임상철 목사 첫번째 도네이션 자동차 -

후원자 : 임상철 목사(남가주리미더교회 부교역자) 수혜자 : 문형미 전도사(나성순복음교회)

주관 : 남가주교역자협의회, 기독일보 후원 : 나라오토, 엘에이오토 연락처 : 기독일보 213-739-0403, 213-718-1512

고난 속 교인들 “세계가 기도해 줄 것 믿는다”

주일이었던 지난 14일 제15회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IDOP: Day of Prayer for Persecuted Church) 행사가 전 세계에서 열렸다. 이번 기도의 날에는 150개국에서 50만여 교회가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오픈도어즈 미국측은 밝혔다.

이번 기도의 날 주간 동안은 지난 7년간 그 어떤 때보다 가장 많은 대기독과 폭력 사건들이 발생했던 가운데, 더 시급하게 요청되는 기도에 전 세계 교인들이 함께했다고 칼 모엘러 오픈도어즈 미국 대표의 말했다.

IDOP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도 행사 중 하나로, 박해 아래 놓인 교회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박해가 없는 곳에 있는 교회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히브리서 13장 3절(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시편 10장 1-2절(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풀 꾀에 빠지게 하소서)에 근거하고 있다.

이번 기도의 날에는 특히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그룹의 성당 공

격으로 성직자를 포함한 56명의 교인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던 이라크를 위한 기도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라크에서는 성당 공격 사태에 이어 기도의 날 주간이었던 지난 10일에도 기독교

제15회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IDOP)' 진행

마을 인근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 5명이 숨지기도 했다.

모엘러 대표는 “이라크는 현재 기독교에 대한 테러리즘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다”며 “하나님께서 이라크 교인들을 위해 개입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모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외에도 오픈도어즈가 발표한 올해 세계 최악의 박해 국가 10개 국가를 위해서도 전 세계 교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종교자유 제한 수준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10위에 오른 국가들은 북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예멘, 모리타니아, 라오스, 우즈

베키스탄이다. 모엘러 대표는 자유 세계에서 살아가는 교인들의 종교자유가 때로는 위협에 처하고 있지만 실제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자유라는 점을 각인시키며,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하면서, 우리의 고통 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우리가 가진 영향력을 이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엘러 대표에 따르면 올해 박해 받는 국가들의 교인들이 요청해 온 가장 우선되는 기도제목은 그들의 안전을 위한 것과, 그들 나라의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신변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한 아시아 국가에서 오픈도어즈와 협력하고 있는 한 사역자는 “이 곳의 교인들이 비록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는 있지만, 기도의 날에 대해 알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이라 믿고 있다”고 전해 왔다고 모엘러 대표는 밝혔다.

모엘러 대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박해가 있는 나라들에서 전제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진짜 자유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를 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손현정 기자>

4만여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모인 집회 '스탠드'



13일 조지아돔에서 열린 대형집회 '스탠드'에 4만 명이 운집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되어야 함 강조

지난 13일(현지시각), 애틀랜타 조지아 돔(Georgia Dome)에는 4만 명의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기독교인들이 모인 대형 집회 '스탠드'가 펼쳐졌다.

흑인시민운동의 중심지 애틀랜타에서 열린 이번 집

회에서는 다시 한 번 거대한 흑인 기독교인들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원 바디(one body)'라는 주제 아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되어 크리스천의 영향력을 널리 미쳐서 하나님 나라 도래를 앞당겨야 할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

올해 집회를 주최한 코리 코드리 씨는 “그리스도의 몸은 많이 분열됐다. 오직 축구장에서만 다양한 인종이 섞여 함께 모여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 오히려 주일은 1주일 중 인종별로 가장 심한 분리를 보이는 날이었다”며 “이제는 기독교인이 하나가 되어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힘을 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딸 버니스 킹 목사도 “아버지의 시민운동의 유산은 위대하지만, 시민운동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교회를 넘어 이웃, 정부에까지 끼치는 기독교인들의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역설한 버니스 킹 목사는 “이것은 회개 없이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스캔들로 인해 참여 여부가 논란이 됐던 에디 롱 목사는 결국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집회 '스탠드'는 2007년 뉴버스미셔너리침례교회(담임 에디 롱 목사)에서 처음 시작됐다. <권나라 기자>

콜레라까지 창궐한 아이티, 긴급 기도 요청돼

지난 1월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아직도 진행 중인 아이티에 콜레라 창궐이라는 또다른 고난이 찾아온 가운데 아이티를 위한 기도가 특별히 필요로 되고 있다.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 기독교 구호단체 브라이트 호프(Bright Hope)는 최근 발표한 긴급 호소문을 통해서 “현재 아이티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새로운 도전에 마주해 있다”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아이티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세계 교계에 요청했다.

이번 콜레라 발생으로 숨진 사망 수는 17일 현재 917명에 달하며, 1만4천여 명이 입원 치료 중이라고 아이티 보건부는 발표했다.

콜레라는 깨끗한 물 공급이 제한적이고 위생이 열악한 환경이 창궐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티에서는 지난 달 허리케인인 로사나로 주민들의 위생이 보다 악조건에 놓이게 됐다고 월드비전 아이티 긴급 구호팀은 밝혔다.

사브리나 푸르망놀랑 구호팀 디렉터는 “처음에는 지진, 그리고 이어지는 홍수가, 이제는 콜레라와 가혹한 날씨까지 모든 것이

아이티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듯하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현지에서 구호를 펼치고 있는 단체들은 현재 주민들의 위생 교육을 통해서 추가 감염자 발생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또한 경구 수분 보충제를 비롯한 의약품 조달에도 많은 지원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아이티에서는 지난 1월 중순 리히터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 전 국민의 3분의 1에 달하는 3백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10만여 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손현정 기자>

힐송 처치 뉴욕 캠퍼스, 젊은이들 각광 받아

최근 뉴욕에 문을 연 호주 힐송 처치의 캠퍼스가 크리스천 젊은이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전했다.

힐송 처치는 시드니에 4개의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해외에는 영국 런던, 우크라이나 키예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스웨덴 스톡홀름, 프랑스 파리, 러시아 모스크바, 그리고 최근 개척한 미국 뉴욕 캠퍼스까지 총 7개의 캠퍼스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뉴욕 캠퍼스는 개척한지 한 달 만에 주로 젊은이들 몰려들어 주일예배를 2부로 확장했으며, 각 예배에는 5백 명

에서 7백 명 가량의 교인들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이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힐송 처치의 뉴욕 캠퍼스를 찾고 있다. 먼저 이들은 힐송 처치에 대해 이미 다른교회에 나가고 있지만 힐송의 예배나 집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뉴욕 월드 체인저스 처치 교인인 카미 아자에는 “뉴스를 통해서 힐송 처치가 개척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힐송 처치가 뉴욕 사역의 씨앗을 심는 일을 돕고 싶어서 찾아 왔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롱 아일랜드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켈리 목사는 “힐송 처치의 워십 스타일은 청소년 사역에 매우 효과적”이라며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도움을 얻고자 왔다”고 밝혔다.

어떤 이들은 힐송 처치의 뉴욕 캠퍼스 개척이 ‘기도의 응답’이라고도 말한다. 파올라 소아레즈는 “뉴욕에 있는 교회에 가봤지만 나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았다”며 “그러던 중 힐송 처치에 대해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됐고 새롭게 다니게 된 이 교회에 매우 만족하며 감사한다”고 말했다. <손현정 기자>

내 부모 처럼 마음을 드리는 봉사자 모집

장애 우 사랑교회에서 양로병원 봉사를 10년동안 하다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매일 찬송가를 암송하시므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기에 이 대회를 빛내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과 봉사자 분들을 (15명)을 초청하오니, 연말연시의 바쁜 시간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그랜드 팍 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7일 오전 9시30분~11시
- 2312 West 8th, Street, LA., CA 90057-3955
- 중앙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8일 오전10시~11시30분
-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대회는 찬송가 204장을 심사곡으로 하여 상금도 주어집니다.
1등 1명에게는 상금 100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3등 3명에게 각각 30불, 그리고 찬송가 모두를
다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연락처 : 213-705-0404 / Fax: 213-351-0955
메 일 : P.O.Box742017 Los Angeles, CA 90004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540 Wilshire Bl. #407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hc.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구세군나성교회
 담임: 김옥균 사관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20
 수요일예배 & 성경공부 오후 6:0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0-0714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염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성경공부: (화)오후 7:30,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수) 오전 10:30, (토) 오전 6: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종교대: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어(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뉴월드임마누엘교회
 담임: 김승일 목사, Mary Kim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3부 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055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993-4842(교회), (909) 993-2157(상담)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달열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 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년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들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0:30(토)
 수요일예배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토)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미주성산교회
 담임: 방동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오전 10:3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00
 1111 W. Sunset Blvd. LA CA 90012
 T. (213)-975-1111 / F. (213) 975-1357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더운터문 4기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정철 목사
 1부EM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주) 오전 6:00
 2부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 (949) 458-9191 / F. (949) 459-9158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쉽있는교회
 담임: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토) 오전 6:00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 (714) 293-1257

시온성증양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의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해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 N.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헬로십교회
 담임: 안창기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15
 종교대부 오후 1:15 장년주일학교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504
 T. (562) 944-8082

에바다선교회
 담임: 이종준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청년예배 오후 7:00
 (월-금) (1,3,5째주 토요일)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2671

예수마을교회
 담임: 정인호 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대부 오전 11:00
 금요중보기도 오후 1:00
 615 shatto place, LA, CA 90005
 T. (213) 249-9191 / F. (213) 739-0515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2-5658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준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종교대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축복교회
 담임: 김인경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어) 청소년예배 (토)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리더십 트레이닝
 Cell Church (금) 오후 8:00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

충현선교회
 담임: 민중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6:3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로우음) 수요일예배 오후 7:45
 정오 12:30(분방)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화-토)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나눔과기쁨,미동부 지역뉴욕본부 창립 대회 개최

나눔과기쁨(상임이사 서경석 목사) 미 동부지역 뉴욕본부(뉴욕 지역 상임이사 김수태 목사) 창립대회가 16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진행됐다.

한국에서 시작된 지 5년 6개월 된 나눔과기쁨 운동이 뉴욕 지역에 소개된 것은 올 7월이다. 7월 12일 뉴욕설명회에 이어 8월 18일 뉴욕지부 창립 받기모임을 가진 후 구체적 준비를 통해 창립대회가 진행됐다. 창립대회에는 상임이사 서경석 목사가 한국서 방문해 나눔과기쁨 설명회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결단과 창립예배가 진행됐다. 뉴욕 지역 상임대표 김수태 목사, 뉴욕지부장 김명욱 목사, 부지부장 신현국 목사, 사무총장 정도영 목사, 협동총무 김진화 목사, 서기 박희근 목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서경석 목사는 "나눔과기쁨은 IMF 경제위기가 왔을 때 가난한 사람을 정부나 기업이 아닌 동네 사람들이 도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운동"이라고 소개했다. 새마을운동, 지방자치단체로 이 운동을 성공시켜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나눔과기쁨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간 것은 다름 아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었다.

처음에는 5,000만원이라는 기

성장주의가 사랑실천운동으로



서경석 목사가 나눔과기쁨 미동부지역 상임대표 김수태 목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금을 나누미 활동자 명목으로 모금해 시작했다. 매달 활동비 30만원으로 용돈도 주고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 갖다 주며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동네의 극빈층 이웃에게 나아갔다. 정부에서 나오는 30만원 보조금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차상위층,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 나누고 베풀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값이 나가는데 오리털 잠바는 주지 못해도 찾아가면 그들은 감동되어 눈물을 흘렸다.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게 하자는 목적대로 교회 안에 아주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나눔과기쁨 가게를 두고 생활필수품과 건강식품, 생채 식품 등을 팔기도 했다. 또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그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다문화센터, 요양보호사과전센터 활동도 소

개하기도 했다. 지금은 나누미만 전국 150개 지부에 3500명이다. 나누미가 처음에는 목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다 나중에 목사라는 것을 안 이웃들은 '예수님 같은 목사가 있다'며 주위에 소개했다. 그러다 보니 놀랍게도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도움을 받은 이웃은 나눔에 감동을 하여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서경석 목사는 "나눔과기쁨 안에서 전도가 너무 쉽다. 예수님처럼 살면 교회는 자연히 성장한다"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냐에 중점을 두었던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바뀐다. 교인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면 내 목회는 완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예수님처럼만 살면 반드시 복음은 전파되게 돼 있다. 목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 우리도 믿겠습니더라는 고백이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과기쁨 운동은 내년 부서는 지역 주민이 중심이 돼 지역을 돕도록 평신도 나누미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경석 목사는 "나눔과기쁨 운동이 교회갱신운동이자 사회 운동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잃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뉴욕지부 상임이사 김수태 목사는 "나눔과기쁨이 한국에서 하는 일 가운데 여기에 맞는 일, 필요한 일을 해나갈 것이다. 창립대회에 100명의 목회자가 참여했는데 이 중 30명의 결단만 나와도 바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계획을 전했다. 나눔과기쁨 뉴욕지부는 첫 설명회 이후 한인 네일샵을 대상으로 무료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네일샵에 이어 미센실, 세탁 등 한인업체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오상아가자>

제39회 총회 진행

뉴욕목사회 회장 김용익 목사, 부회장 김승희 목사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제39회 정기총회에서 김용익 목사(뉴욕주신교회 담임)가 회장에, 김승희 목사(뉴욕초대교회 담임)가 부회장에 당선됐다.

부회장이었던 김용익 목사는 투표를 거치지 않고 관례에 따라서 회장에 무난히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3명의 후보가 등록, 3파전을 벌였던 부회장 선거에서는 김승희 목사가 한 번에 과반수의 지지를 얻었다. 총 108표 중 58표를 얻었다. 오태환 목사는 32표, 이광희 목사는 16표를 얻었다. 무효는 2표였다.

이어서 감사 선거가 진행됐으며 지교찬, 박맹준, 주효식 목사가 감사로 선정됐다.

선거권 강화, 풍부해진 재정

올 총회에서는 회칙에 따라 선거권을 엄격히 제한했다. 회칙에 따르면 회원은 대뉴욕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목사로 목사회 목적에 찬동하고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행위원회 승인 후 총회 시기가 회원 증명하면 회원이 된다. 이 중 총회 무단 불참 연3회 또는 무임목회 3년 이상이 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39회까지 목사회에 등록된 회원은 총 197명이

다. 이 중 지난 3회기동안 단 1회라도 참석한 회원은 146명이다. 지난 3회기동안의 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108명이었다.

39회기 총회 등록 테이블에서는 미납 회비가 8천여불이 걸렸다고 목사회는 보고했다.

신입회원
제39회기에는 김재룡(프라이미스교회), 박현영(윈즈순복음교회), 이미선(할렐루야뉴욕교회)등 3명의 목사가 가입했다.

감사보고

노기승 목사는 10월 10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감사를 거쳤음을 보고했다. 그는 "임원진 108명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시작해 의아했으나 많은 행사를 잘 치러내고 재정 확보도 잘 했다"고 이번 회기를 평가했다. 그는 제32대 목사회 회장을 지낸 정진홍 목사의 1만불 헌금과 관련해 "얼마전 정 목사님과 만났다"며 "1만불과 관련해 적금을 붓고 있다고 전해들었다.

신용이 가장 중요한 데 정 목사님께서도 잘 해결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 보고 후 총 수입 액수(\$45,161.50)와 감사 보고 액수(\$45,361.50)가 다른 것은 확인 후 다음 총회에서 정정 보고하기로 했다.

<윤주이 기자>



신임회장 김용익 목사(좌), 부회장 김승희 목사(우)

필라교협 신임 임원진 및 사업 발표

대필라델피아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강승호 목사)는 지난 8일 오후 7시 벨앨장로교회(담임 안재도 목사)에서 필라교협

찬양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 기도회 및 하례회는 2011년 1월 2일 일 오후 6시 벅스카운티장로교

1부회장 이대호 ▲제2부회장 김낙원 ▲총무 김선훈 ▲서기 임관호 부서기 정인원 ▲회계 서장석 부회계 김성우 ▲감사 신정기 백

"모든 회원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추진하겠다"

31회기 제1차 실행 위원회를 열고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필라 교협은 지난해 사업을 토대로 이번 회기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 12월에는 귀니드양로원 특별 예배를 드리며 12월 12일 오후 6시 켈튼햄장로교회(담임 최정권 목사)에서 성탄 축하 연합

회(담임 김풍운 목사)에서 열린다. 또한 ▲자매대회 협력 ▲교협 수첩 발간 ▲복음화대회 개최 등을 2011년 주요 사업으로 정했다. 복음화대회 강사는 임원회에 임원했다.

교협 사업을 이끌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회장 강승호 ▲제

흥기 ▲전도분과 안재도, 김영천 ▲신학분과 신정기, 김재성 ▲대내분과 김창만, 이광영 ▲대외분과 황준석, 박등배 ▲조국통일분과 전영현, 민영선 ▲정보통신고택원, 이정철 ▲홍보분과 최형관, 최천용 ▲음악분과 윤성철, 박도성 ▲청소년분과 최해근, 박

성일 ▲체육분과 호성기, 차명훈 ▲평신도분과 김풍운, 강학구 ▲재정분과 박상욱, 배우태 ▲실행위원 고택원, 김영천, 김재성, 김창만, 김풍운, 류인곤, 문성록, 민영선, 박등배, 신정기, 안영균, 안재도, 이용걸, 이광영, 이정철, 전영현, 차명훈, 천조용, 최형관, 최해근, 호성기, 황준석(이상 목사), 김용식, 김종식, 김창순, 김창현, 김태연, 박상욱, 배우태, 백흥기, 한영권(이상 장로)

필라 교협은 "회원 의무에 충실한 것을 위주로 선정했다"며 "각 분과별로 모든 회원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주이 기자>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op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샌프란시스코 교협, 성탄 맞아 지역커뮤니티 지원

샌프란시스코 교회연합회(회장 김광선 목사)는 16일(화) 정기모임에서 성탄연합예배 일정을 결정하면서 성탄연합예배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지원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이번 샌프란시스코 교회연합회 슬로건은 '하나되는 교회'이다. 김광선 목사는 "다민족을 섬

주며 섬기기로 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인 목회자들이 함께 참석해 봉사할 예정이다.

구세군에서 진행하는 자선남비 행사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12월 7일에 구세군상향교회에서 진행하는 자선남비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샌프란시스코 한인 교회 목회자들이 하루동안 오전

성탄연합예배 현금통해 홈리스와 노인회 섬기기로 결정

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샌프란시스코 지역 교회들끼리 섬기는 일을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교회연합회는 지난번 정기모임에서 이번 성탄연합예배에서 모인 현금 전액을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쓰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번 모임에서는 현금을 통해 구체적으로 홈리스 사역과 상황 한미노인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홈리스 사역 지원은 특히, 이 전부터 계속 홈리스 사역을 계속 해온 한인교회들을 통해 연말에 홈리스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나눠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두시간씩 나누어 교대로 섬기게 된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각 한인 기관장 대표를 초청하는 기관장 기도회 일정이 결정됐다. 내년 1월 18일 오후 7시에 상한한국인 연합감리교회(박효원 목사)에서, 다음번 월례회는 2월 8일 오전 11시에 구세군상향교회(오관근 사관)에서 갖기로 결정했다. 기관장기도회는 내년에 북가주교회협의회총연합회(회장 이동학 목사)가 주최하는 이동원 목사 초청 부흥회와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고려했다.

(임형진 기자)

다민족모여 미국과 열방향한 특별기도 컨퍼런스

글로벌다민족중보기도 컨퍼런스 개최



글로벌다민족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가 지난 6월 27일에 밀피타스 시에 위치한 리빙워드크리스천센터(리빙워드연합교회)에서 열렸다

글로벌다민족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가 12월 12일 오후 6시에

공코드 지역 미국 침례교회인 Bethel Baptist Church(Kenneth R. Patton 목사)에서 열린다.

지난 6월에 진행된 중보기도 컨퍼런스에 이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이스트베이지역 10개국 민족 이상이 참여한다. 교인들 뿐 아니라 미국 일반 시민을 포함한 여러 다민족이 모여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위한 특별기도 컨퍼런스이다.

프로그램총괄 디렉터로 캔 페튼 목사,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 테니엘 쉐 목사, 뮤직 코디네이터에 로리 쿠퍼, 예배분과위원에 일본 크리스토퍼 도이 목사, 기도분과위원에 파키스탄 Nagir 목사, 음악 지휘에 러시아 Victor목사가

맡는다. 지난번 선교보고에 제한된 시간관계상 참여하지 못했던 민족 중심으로 선교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된다.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퍼시픽 아일랜드, 에티오피아, 버마, 한국 등 순서로 보고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순서에서는 북한의 선교적 방향과 통일 대비위한 준비를 다룰 예정이다.

이외에도, 성령역사를 통한 부흥을 위해 다민족 연합중보기도 모임은 현재 매달 두번씩 산호세, 이스트베이 지역을 번갈아가며 지역 다민족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다.

장소: 3578 Clayton Rd. Concord, CA 94519
(임형진 기자)

노숙자의 따뜻한 등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더욱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는 예보가 마음을 더욱 움츠려드는 요즘 End Homeless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자들을 섬기는 동지선교회 후원회 밤에는 노숙자들을 향한 따뜻한 온정과 사랑이 가득했다.

지난 13일 웨드럴웨이 KO-AM TV 공개홀에서 열린 2010년 동지선교회 후원의 밤은 선

교회의 한 해 사역 보고에 이어 집세 수혜자의 간증, 동지밥상 수혜자 간증, 물품으로 도움 받은 텐트 시티 대표의 감사의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순서에서 동지선교회는 네 명의 노숙자들에게 집세를 전달하고 노숙 근절의 기반을 마련해 줬으며, 집세를 전달 받은 노숙자들은 눈물로 한



동지선교회 김진숙 목사가 노숙자 사역의 시급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김브라이언

인들과 한인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진숙 목사는 "노숙생활은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육적, 정신적, 영적으로 외로움과 추위를 겪는 것"이라면서 "노숙생활을 하는 동안 난류를 막론하고 감당당하고, 도둑맞고, 배고픔과 질병 등으로 고생하다 평균 44세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노숙자 생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샌라파엘한인장로 교회 최은석 담임 목사 위임예배



최은석 목사

샌라파엘한인장로교회(PCUSA) 최은석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20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열린다.

최은석 목사는 한국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풀러신학교에서 공부하였으며, LA지역에 있는 선한목자장로교회에서 8년동안 섬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샌라파엘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로 8월 15일 부임했다.

부임한 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목표로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1차적으로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섬기고 있다.

교회주소: 635 Adrian Way, San Rafael, CA 94903 연락처: 교회 415-491-1932

(임형진 기자)

KPC 2010 정기총회 열고 신 임원단 선출

회장에 권 준 목사, 부회장에 이경호 목사



KPC 2010 정기총회 기념사진

미국장로교(PCUSA) Alaska-Northwest 대회/ 서북미 한인교회협의회(KPC 회장 노관현 목사)는 지난 9일 베이커링제교회(담임 현영한 목사)에서 2010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신 임원단을 선출했다.

새로 선출된 임원은 회장에 권준 목사(시애틀 형제교회), 부회장에 이경호 목사(타코마 제일장로교회), 장로 부회장에 차철호 장로, 총무에 이기범 목사(스포캔한인장로교회), 서기에 강성림 목사(평안교회), 감사에 이형성 목사(타코마중앙장로교회), 송호

남 장로로 KPC 내년도 회기를 이끌게 됐다.

예배로 시작한 이날 총회는 권준 목사의 인도로 현영한 목사가 설교했다. 현 목사는 '요 나의 표적'(마12:28-40)이란 제목으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자"고 강조했다.

현 목사는 "오늘날 세상은 교

회를 향해 선행과 도덕적 성별을 요구하지만, 교회가 할일은 그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부합함은 기본적인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교회가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야 하지만 교회의 모든 표적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

가와 부활이 자리잡아야 한다"며 세상의 시류에 흘러가는 교회 풍토에 중심이 잡히길 촉구했다.

사업 보고 시간에는 남선교연합회 김길수 장로와 여선교연합회 박미원 장로가 ▲청소년찬양제 ▲두차례에 걸친 무료의료 봉사 ▲서북미 여선교 찬양의 밤 ▲동지선교회 협력등을 보고했다.

한편 소은일 목사는 올림피아 한인장로교회가 올림피아 하나 교회로 명칭이 변경됐음을 보고했다. 소 목사는 노회로부터 "다중문화 가운데 한인이란 용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건의를 받고 8개월 동안의 공모 끝에 하나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보고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 ✓ Smog Check
- ✓ Brake Service
- ✓ Tune-Ups
- ✓ Computer Diagnostc
- ✓ 전기계통
- ✓ 30/60/90K Service
- ✓ A/C Service

L.A. AUTO 정비





24hr 213.247.6657

※ 목회자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엘에이오토정비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Tel. 323-735-3180

Fax. 323-730-0112



Mon - Fri
A.M 7:00 ~ P.M 7:00

Sat - Sun
A.M 8:00 ~ P.M 6:00

SMOG CHECK
\$10 off

REPAIR
\$10 off

“성경은 ‘동성애는 죄’ 명시, 국민들도 반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에서 16일 오전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및 군 형법 제92조 폐지 반대를 위한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기총 인권위원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내 동성애 허용 의견 표명과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의 동성애 차별금지법 추진 반대를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이광선 대표회장을 비롯해 김윤태 총무, 박봉규 위원장, 박요셉·이요나·김규호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군 내 동

성애를 금지하는 군 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심판과 관련, “동성애가 전투력과 군기, 결속력 저하

한기총, 차별금지법 및 군 형법 92조 폐지 관련 입장 표명

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한 바 있다.

이광선 대표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레위기과 로마서 등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동성애는 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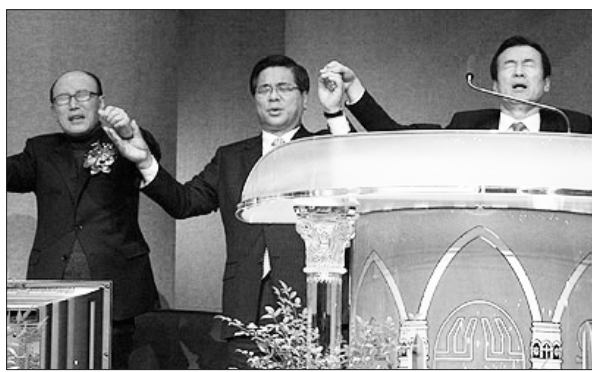
고 명시하고 있다”며 “군 내에서 동성애가 허용되는 것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만큼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

했다.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의견들로 판단의 오류를 갖지 않고 국민의 정서와 부합하는 신중한 판결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동성애가

잘못된 일이며 동성애에 대해 반대한다고 발언하거나 종교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 설교, 강론 또는 설법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추진중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한국교회 입장과도 반하는 법이기에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헌법재판소로 가서 국민들의 탄원서와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대웅 기자)



조용기 목사, 이영훈 목사, 최성규 목사(왼쪽부터)가 손을 잡고 함께 교단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기하성, 들고 돌아 다시 하나됨의 물꼬 트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총회(총회장 이영훈 목사)와 통합총회(총회장 최성규 목사)가 통합을 결의하고 조용기 목사와 최성규 목사, 이영훈 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선언 및 감사예배를 개최했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통합선언식에서는 최성규 목사와 이영훈 목사가 등단해 통합 결의문을 채택하고 통합을 공식 선포했다. 이들은 통합된 총회 총재에 조용기 원로목사(자문위원장)를, 총회장에 이영훈 목사를 각각 추대했다. 최성규 목사는 직전 총회장 자격을 갖기로 했으며, 나머지 임원들은 현 임원들이 공동으로 선임됐다.

격려사에 나선 조용기 목사는 “그렇게 어려울 때는 헤어지지 않더니 이제 살 만하니 다들 갈라지더라”며 “오늘 여러분 앞에 엎드려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하는 최성규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다”고 전했다.

조목사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 다시 회개와 용서, 화합과 일치를 이뤄 나가자”며 “오늘 이 자리에서 통합을 선언한 최성규 목사와 이영훈 목사는 영적으로

모두 내 아들과 같은 이들”이라고 말했다.

최성규 목사는 “사랑이란 ‘못 떠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순복음 교단과 오순절 신앙, 조용기 목사님을 사랑하므로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총대들 앞에서 큰절을 했다.

이날 총대들은 △1991년 12월 19일 선언한 대통합의 정신과 감격으로 다시 한번 회원과 성도가 하나되는 진정한 대통합을 이루는데 힘을 모아 앞장설 것 △헌법 개정 및 교단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총회장 임원회에 위임할 것 등을 결의했다.

이어진 감사예배에서 설교한 이광선 한기총 대표회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두 교단이 통합된 것을 축하하고, 또다른 형제들과도 합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러한 (통합의) 기운이 장로교회에도, 감리교회로도 들 어갈 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합을 선언했지만 이들은 내년 총회에서의 임원 선출과 서대문 박성배 목사측, 조용목 목사측과의 통합이나 관계 조율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는 평가다.

(이대웅 기자)

설교자를 ‘행복한 빵쟁이’로 만드는 10가지 레시피



교갱협, 제3기 젊은목회자 포럼 개최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회의 교갱협) 제3기 젊은목회자포럼 ‘젊은 목회자 미래사역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가 15일 서울 송월동 서대문교회(담임 장봉생 목사)에서 개최됐다.

교갱협은 한국교회의 미래인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에 대한 바른 철학과 사역의 실제에 대한 안목을 통해 장차 균형잡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

제3강 ‘설교’ 강의에 나선 교갱협 문화부위원장 박영찬 목사(대구동산교회)는 ‘행복한 빵쟁이’를 주제로 설교를 ‘빵 만들기’에 비유하며 ‘행복한 젊은 빵쟁이를 위한 10가지 레시피(recipe)’를 공개했다.

시종일관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며 강의를 듣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유쾌한 영감을 불어넣은 박목사는 미국 칼빈신학교 설교학 교수인 시드니 그레이다누스(Sidney Greidanus)의 강해설교 원리와 총신대학교 설교학 류응렬 교수의 설교작성법을 참조해 이 ‘레시피’를 만들었다.

1번은 성도들의 필요(congregational need)에 따른 ‘본문 선택(Select preaching text)’이다. 그 본문은 사상적 단위여야

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 박목사는 책별 연속 선택보다는 주제별 선택, 서술체 본문보다는 이야기체 본문을 권했다. 또 “야구에서 9회말 2아웃의 역전 위기라면, 투수가 무슨 공을 던지겠느냐”며 가장 자신있는 것, 즉 주무기를 사용하라고 전했다.

2번은 ‘본문 읽기(Read in text)’. 주석이나 설교집을 먼저 읽지 말고, 원문과 영어성경, 한글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저자의 의도와 청중에 대한 적용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 두고, 성령님의 조명을 기대하며 기도한다.

다음은 ‘본문 윤곽 잡기(Outline the text)’다. 중요한 진술이나 본문의 문학적 구조, 구성, 장면 등으로 본문 윤곽을 잡아야 한다. 윤곽을 잡았으면, 이제 본문을 ‘해석’해야 한다(Interpret the text). 본문에 무엇이 있으며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고, 본문이 왜 여기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문학적·역사적·신학적인 해석을 시도해 본다.

다섯번째는 ‘본문의 핵심 메시지와 목적 찾기(Formulate the text’s theme and goal)’다. 핵심



박영찬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메시지란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자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 청중들(the original hearers)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며, 본문을 통합하는 짧고 간결한 요약 문장이다. 박목사는 좋은 메시지의 특징을 ‘C.B.S.’라고 소개했다. Clear(에메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Biblical(하나님·그리스도 중심)·Simple(길고 복잡하지 않으며 짧고 간단한 하나의 메시지)의 약자다.

이어 ‘전체 성경에서 메시지 이해(Understand the message in the context of the whole Canon)’가 필요하다. 성경 전체가 각 본문의 컨텍스트를 형성하

게 되므로 핵심 메시지를 신구약 전체 성경에 흐르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곱번째는 ‘설교의 핵심 메시지와 목적 찾기(State the sermon theme and goal)’. 5단계에서 발견한 본문의 핵심 메시지와 목적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핵심메시지와 이루시려는 목적을 찾는다. 이후에는 ‘설교 형식’을 고르고(Select sermon form). 그런 다음 여행에서 이정표와도 같은 ‘설교의 윤곽 정하기’(Prepare sermon outline). 설교 윤곽은 크게 서론·본론·결론으로 구분하는데, 좋은 서론으로는 비행기의 이륙과도 같은데 흥미유발·문제제기·적당한 시간 등이 있어야 한다.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점으로, ‘착륙’인 결론은 안전하고 정확한 것이 최고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고 작성(Write the sermon)’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일단 써야 한다.

박목사는 “좋은 설교는 저절로 들리는 설교, 하나님과 청중을 미소짓게 하는 설교”라며 “좋은 레시피로 ‘제빵왕 김탁구’처럼 잘 숙성되고 맛있으며 기본 좋은 설교를 많은 이들에게 만들어 주는, 행복한 빵쟁이가 되자”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여드름 고민 해결!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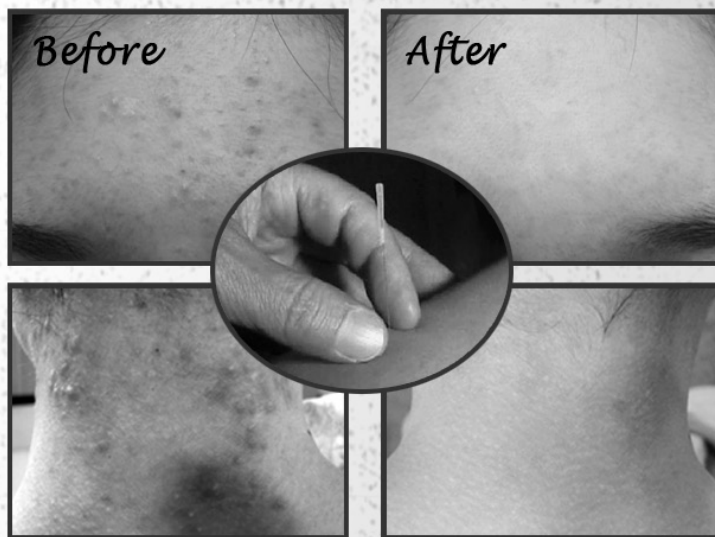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외과 대학 교수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T.213-380-0853

현순호 칼럼



현순호 목사
전 미국장로교회 중서부 지역 한인교회 총무

사람을 분류할 때 늘 감사하는 사람들과 언제나 불평하는 사람들로 나누면 지나친 이분법일까? 전자에 속하는 사람은 가능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심지어 자신이 당한 아픔까지도 그 일을 통하여 본인을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기에 언제나 감사하며 산다. 더욱 흥미 있는 일은 그런 사람에게서는 훈훈한 온기가 나와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또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후자에 속하는 인간들은 사사 건건 불만이다. 이것은 이래서 틀리고 저것은 저래서 나쁘다는 불평이고 그렇다고 자신이 어떤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독소가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뿐 아니라 남들을 부정적으로 오염시켜 그가 속한 단체를 와해시키는 주모자가 된다.

세상에 신기한 일은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따라오는 보너스가 있다. 즉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한 거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 역할까지 한다. 약 2천 년 전에는 문둥병 환자를 하늘이 내린 천벌로 생각하곤 했으나 지금은 자신이 그 병에 전염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피하고 도망갔다. 환자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격리되

어 언덕 밑 빈 굴에 들어가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그 어느 날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모여서 자신들의 처참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가 무슨 병이나 고치시는 예수님이

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눅17:19)고 더 큰 축복을 주셨다.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덩어리 받은 것이다. 여기에 큰 뜻이 있다. 즉 받은

또 인간의 생존권인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모자라서 영양실조에 허덕이며 기초적인 병 치료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을까.

더욱 감사한 일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 형제 친척 좋은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신앙의 식구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알게 된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은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큰 재산이다. 만일 다른 사람의 사랑을 조금 덜 받는다 해도 조물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감격의 눈물이 쏟아진다.

또 있다, 자연의 은혜다. 하늘이 높이 떠 24시간 열과 빛을 공짜로 주는 해가 있기에 모든 생물이 성장할 수 있고 또한 바람 따라 때를 따라 비를 몰고 오는 구름, 그 밑에서 많은 새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며 때를 지어 날아들고 밤에는 변함없이 찾아오는 달과 별이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해 주고 계절

을 따라 피어나는 꽃과 나무들은 땅위의 모든 생물을 풍성하게 해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연의 혜택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세상에는 꽃과 나무가 없는 사막이나 눈과 얼음 속에서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 말이다.

더욱 감사 할 일은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다. 조물주를 비롯해 받은 사랑을 되 돌려주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내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과 마음에 상처가 너무 커서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 외에도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 헤매는 영적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 또한 상처를 싸매주고 새로운 길을 색색 주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이 주신 복종의 복이다. 하나님께 감사,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과 자연에 감사 그리고 모든 만물을 사랑하며 살 수 있으니 감사하다.

감사하자

그 고을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죽을힘을 다해 길가에 나와서 "예수님 병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고쳐 주십시오" 하며 크게 소리 질렀다. 그 애원을 들으신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소원대로 그 무서운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 그런데 열명 중에 아홉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어디로인가 가 버리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가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백배 감사했다. 그 때 예수님은 "너와 같이 고침을 받은 아홉명은 어디 있느냐" 하시고는 이어

바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너무도 많지만 그것을 모르고 또 무시하는데 인간의 비극이 있다. 꼭 조건을 말 한다면 우선 살아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할 일이다! 이 시간에도 심장이 뛰고 피가 끊임없이 돌아가며 숨을 쉴 뿐만 아니라 음식을 소화시켜 배설하고 손과 발을 움직이며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세상에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보다 더 많다.

보험 칼럼



플 선 플레너

수호천사 보험 시니어 전문

메디케어는 196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에 의해 65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CMS(Centers For Medicare Services)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메디컬)는 주정부에서 저소득층 분들에게 병원 및 의료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메디케이드 가입 및 수혜자격에 대한 규정은 각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메디케어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의료비용을 부담해 주며 대부분 처방약 보험이 신청 없이 제공

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A(병원보험): 40쿼터 (10년) 페이롤 텍스보고를 하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며, 만일 텍스보고

(보조보험) 가입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처방약 구입을 위해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별도로 매월 일정 비용을 지불하시고 파트D(처방약보험)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메디케어 우대플랜 HMO는 CMS(Centers For Medicare &

업)과 파트D(처방약 보험)를 구입할 필요가 없고 디덕터블이 없는 플랜을 운영하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우대플랜 HMO는 주치의의 통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정기적으로 진

유하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며, 특히 시니어들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를 받다보면 약물과 다 복용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HMO를 통해서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9년 7월 이후 메디케

병원 방문시, 교통편 제공, 가정 방문 간호 서비스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우대플랜 HMO의 가입자격은?)

- 메디케어 수혜자로서 파트A와 파트B가 있는 분은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 파트A와B, 동시에 메디컬을 소유하신 분

- 메디케어 파트A와B, 처방약 보험 파트D를 소유하신 분

- 메디케어 파트A와B, Supplemental보험(보조보험)을 소유하신 분

- 메디케어 파트A와B, 다른 회사의 HMO를 갖고 계신 분

HMO를 취급하는 건강보험 회사별로 혜택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건강 보험회사와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자격을 갖춘 에이전트를 통해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면 비용절약은 물론 차별화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전문 플레너 폴선: 213-503-6897 / 2140 W.Olympic Blvd #214 LA CA 90006

시니어 분들을 위한 메디케어 우대 플랜 HMO

기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매월 일정비용을 지불하시고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파트B(의료보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연간 개인 수입 \$85,000.00 부부수입 \$170,000.00 이하인 경우 매월 \$110.50 지불 하셔야합니다.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는 65세가 되시는 생일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소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에 가서서 시청 하셔야합니다. 이렇게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를 취득하신 분들은 의료비용의 약 80%혜택을 받으시기 때문에 나머지 20%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매월 일정 비용을 지불하시고 Supplemental 보험

Medicare Services)로부터 승인을 받은 건강보험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Supplemental보험 (보조보

료와 상담을 받음으로 큰 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 할 수 있으며, 의사선생님들이 같은 그룹 내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를 공

이드(메디컬)로 받을 수 없게 된 혜택- 치과, 한방침술, 안경, 척추교정지압 외에 헬스클럽회원권, 해외 여행시 응급비용지원,



총신디지털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본원은 최고의 교수진과 동영상 강의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수업이 가능하며, 수료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교단에서 목사인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과정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4학년) 8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2학년) 4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 국내 외 신학대학(교)에서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각 교단 신학교 졸업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수료한 해당학년 학생 및 졸업자
신대원 전문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3학년) 6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국내 외 일반대학교(4년제)나 대학원 이상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편입학 - 학사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타신학교에서 신대원과정 재학중인 자

특 전

-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한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 여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 회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함
-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시의 필기고시를 면제함

구비서류

-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총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임과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격!

블랙앵거스 프라임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자신있게 판매 드립니다!〉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Boston Hub Dental & Implant Center 보스턴 덴탈 & 임플란트 센터

10년 임플란트 식립 경험 전문 치과의사와 보철 전문의가 최상의 임플란트 시술 및 보철물 제작임플란트 성공은 적절한 임플란트 식립과 치주 처치 및 보철물 제작에 달려 있습니다.

무통 임플란트	잇몸 절개 없는 임플란트	* 턱터 박상술 보철 전문의	* 턱터 최인호 임플란트 전문의
수면 임플란트 (V injection)	드림 없이 심는 임플란트	연세대학교 졸업	보스턴 임플란트 보스턴 치과대학 졸업
방치 즉시 임플란트 및 즉시 보철 제작 (Case by Case)		과잉 진료	

● PRP & PRF 시술 (임플란트 주위 골 생성 촉진)

오픈기념 특별할인 임플란트 \$999 (limited 보철포함)
검진 + X-Ray + 클리닉 = \$40

치과 이식 • 보철치료 • 신경치료 • 구강외과 • 보철환양: PPO, HMOA
치주치료 • TMI (악관절염, 소골원통) TEL: 714, 638, 4042 / 714, 638, 2141 (한국어)
보철 (주름, 근육에 의한 사각턱) • 치아교정 13031 Kerry St., Garden Grove, CA 92644



Pacific General Insurance Agency, INC.
태평양 종합보험 (주)

▶ 비싼 보험료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세요?

저희 회사는 여러분의 사업체와 개인보험 위험을 없앨수 있는 없지만
보험료 비용은 낮출 수 있습니다. (LIC# 0G17850)

상업보험전문 / 중업원상해보험 / 개인보험 / 생명보험 / 건강보험
호텔 그로서리, 세탁소, 상가건물, 아파트, 식품마켓, 교회보험, 각종비즈니스, 상업차량, Surety Bonds

☎ 323-378-6213 - Toll Free: 877-393-2311
451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동양선교교회 앞)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10월 29일, 12월 19일 시험대비 CDP 치과기공 면허 응시생 모집
CDT 치과기공 면허 준비반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가톨릭기속성 학생모집 (학스, 포셀린, 메탈 모델)
- 전 치과 기공 대학 학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LA캐atering

주말날 점심메뉴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Church Set (교회용식사) Menu D를 보십시오.

편리한 예약 상담/ 신속한 견적 서비스
www.lacatering.com

카레라이스 \$1.00 (1인당)
짜장소스 \$1.00 (1인당)
유채콩나물국 \$1.00 (1인당)
김차미역국 \$1.00 (1인당)
아미비빔밥 \$1.20 (1인당)
고기비빔밥 \$1.80 (1인당)
육개장 \$1.5 (1인당)

1-800-530-5660 / 1-800-711-0776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건과류, 각종 농산품 등)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조립식 각종 선반 전문





상점 및 그라지용 Bottless Shelving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무한, 현물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리버리를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323) 855-5687 / (213) 200-3050
646 S. San Pedro St. LA CA 90014 (산페드로 St, 6가 7가 사이)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MR 박을 찾아주세요!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1.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2.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3.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4.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포드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30여개국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포드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 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이중창문교체전문

10개 기본창문 (햇빛차단 Low-E)
\$2,699+Tax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철 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방수, 루핑

LIC # 531243

지붕, 욕실, 벽, 텍, 지하, 창문

물새는 곳, 특수 방수 공법, 완벽시공

CAP CONSTRUCTION

213-327-9929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 시청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 (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 (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K.KOH 루핑

Li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운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 200-7552 (213) 663-2306

결혼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 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TEL : 213-381-0081, FAX : 213-381-0010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11월 22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

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캘리포니아 라노대학교
California university llano

T: 714-490-0065 F: 714-333-4990
520N. Brookhurst St.Ste.120 Anaheim CA92801
www.californiauniversityllano.org

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

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풀러신학교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TEL : 213-440-0125
1325 12th Ave. LA CA 900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p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한국 야구 승리 기념 이벤트

대한민국 야구팀 경기 승리 때마다 포인트가 \$5 팡팡!! (경기당)

아이토크비비가 쏜대!

대한민국 야구 금메달 획득시 추신수 글로벌 플랜 또는 글로벌 플러스 플랜이 3개월 무료!

행사기간: 11월 8일(월) ~ 11월 30일(화) 까지 아이토크비비와 함께 응원하세요!!

이·아·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한국 포함 국제전화 무제한

지금 가입하시면, 3가지 혜택이 공짜!!

- 1. 혜택** My Korea Number 마이 코리아 넘버 한국에서 국내통화료 부담없이 미국으로 전화하세요!
- 2. 혜택** iTalkGlobal 아이토크글로벌 외출 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 3. 혜택** 개통비 29,900 면제 \$0

iTalkBB Global Plan	iTalkBB Global Plus Plan
글로벌 플랜	글로벌 플러스 플랜
\$9.99/월 TAX 포함 첫 3개월간 이후 \$24.99/월	\$14.99/월 TAX 포함 첫 3개월간 이후 \$34.9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컬, 미국/캐나다 장거리, 한국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음성사서함, 발신자표시, 3시간 통화,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 무료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플랜의 모든 혜택은 기본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통화!

대한민국 야구팀 경기일정

A조(4팀):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11/13 (토) 05:00am 대한민국 vs 대만	11/17 (수) 11:00pm B조 1위 vs A조 2위
B조(4팀): 한국, 대만, 홍콩, 파키스탄	11/14 (일) 05:00am 대한민국 vs 홍콩	11/18 (토) 11:00pm A조 2위 vs B조 2위
	11/15 (월) 11:00pm 파키스탄 vs 대한민국	11/18 (토) 11:00pm 3, 4위전 결정전 (동메달)
		11/19 (일) 05:00pm 결승전 (금메달)

아·이·토·크·비·비 iTalkBB 1-800-872-2902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모집 대상: 인터넷전화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또는 기존 매점내 신규 아이토크비비 추가 하고자 하시는 분
사업자 상담 전화: 213-784-1133 (통화시간 오후 1시~오후 9시)

온라인 가입 및 자세한 내용은 ▶ <http://www.Korea.iTalkBB.com>
1-800-875-8318 고객센터원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청구서 대신 안전한 간편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2010년 모델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단, 11월 22부터
11월 28일까지 한정

추수 감사절 대박 세일

목회자 자체 용자 및 원가 세일

현재 남가주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거나, 없으셔도 자체 용자 해 드리거나 원가 세일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와 2010년 pre-owned 쏘나타 한정)

•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

11월 스페셜 세일

2010년 NEW 엑센트



2010년 엑센트 GS (VIN # 172818)
정상가 \$17,995 **세일가 \$13,999**
(INCLUDE REBATE 1000, MILITARY 500, COLLEGE 400, PH D/C 1,196)

2010년 NEW 엘란트라



2010년 엘란트라 GLS (VIN # 093924) 정상가 \$17,795 **세일가 \$12,9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396)

2010년 엘란트라 GLS (VIN # 055411) 정상가 \$18,610 **세일가 \$13,8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311)

2010년 엘란트라 GLS (VIN # 053362) 정상가 \$18,690 **세일가 \$13,8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391)

2010년 엘란트라 SE (VIN # 091984) 정상가 \$19,360 **세일가 \$14,2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661)

2010년 엘란트라 SE (VIN # 090605) 정상가 \$19,410 **세일가 \$14,3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611)

2010년 NEW 제네시스



2010년 제네시스 쿠페 2.0T MT (VIN # 041505) 정상가 \$25,625 **세일가 \$21,599**
(INCLUDE LOYALTY 1000, MILITARY 500, COLLEGE 400, PH D/C 1,126)

2010년 제네시스 쿠페 2.0T MT (VIN # 042493) 정상가 \$23,235 **세일가 \$19,699**
(INCLUDE LOYALTY 1000, MILITARY 500, COLLEGE 400, PH D/C 1,636)

2011년 NEW 쏘나타 GLS



2011년 최신형 쏘나타 GLS (VIN # 157254) 정상가 \$21,254 **세일가 \$17,699**
(INCLUDE LOYALTY 500, MILITARY 500, COLLEGE 400, PH D/C 1,681)

상기 모든 모델을 어느 딜러보다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재고를 보유한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품위있고, 쾌적한 넓은 매장에서 친절함 각국의 세일즈맨들의 친절함 서비스를 받아 보세요. 진심으로 만족 하실 것입니다.

11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이외에도 사고 없는 딜러가 보장하는 많은 중고차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원가 공개 세일



2009 HYUNDAI ELANTRA BLUE STK P755456 **\$14,990**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 P018925 **\$28,900**



2009 HYUNDAI SANTA FE SILVER STK P253216 **\$17,995**

- 2007 BMW (WHITE) 328I STK PZ70863 **\$22,888**
- 2007 BMW (BLACK) 328XI STK PP31167 **\$26,888**
- 2007 HUMMER (YELLOW) H3 STK P126552 **\$24,888**
- 2008 HYUNDAI (GOLD) ENTOURAGE STK P051414 **\$18,488**
- 2009 TOYOTA (WHITE) TACOMA STK P640770 **\$16,999**

- 매니저가 권하는 중고차 세일 -

- ▶ 2007 HYUNDAI AZERA GRAY STK P185167 **\$17,888**
- ▶ 2008 HYUNDAI AZERA BLACK STK P332058 **\$20,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GRAY STK P046436 **\$29,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SILVER STK P019812 **\$28,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WHITE STK P048693 **\$34,888**
- ▶ 2010 HYUNDAI SANTA FE GRAY STK P337186 **\$21,888**
- ▶ 2009 HYUNDAI SONATA BLACK STK P440119 **\$13,888**
- ▶ 2010 HYUNDAI SONATA BEIGE STK P581165 **\$15,888**
- ▶ 2010 HYUNDAI SONATA WHITE STK P597224 **\$14,888**
- ▶ 2008 HYUNDAI VERACRUZ WHITE STK P057661 **\$22,888**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9.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함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have your Hyundai, we'll let you know.